

유모차부터 어른까지 평화 집회…성숙한 시민의식 빛났다

광주 금남로서 백남기 농민 추모·박근혜 퇴진 촉구 대회

9일부터 매주 수·토 촛불시위…백남기 고향 보성서도 집회

‘최순실 국정농단’에 성난 민심이 들어 올린 촛불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장례를 기점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평화롭게 촛불집회가 마무리되고 시민들이 솔선해 뒷정리를 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1987년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조치’ 발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던 ‘6월 항쟁’을 방불케 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광주는 물론 서울과 대구, 경북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크고 작은 촛불 집회가 열렸다. 서울에서만 20만명이 집결, 13만명이 참석한 지난해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국정농단 헌정파괴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준)’ 주최로 ‘백남기 농민 추모와 박근혜 퇴진 촉구 광주시국 촛불대회’가 열렸다.

이날 촛불대회에는 모두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정치인과 농민,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구성들은 물론 유모차를 끈 주부, 중·고등 학생, 직장인, 노년층까지 세대와 계층을 넘어 참가한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손에는 ‘국민의 명령이다. 퇴진하라’, ‘이게 나라냐’,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등의 피켓이 들려있었다.

촛불대회에 참석한 박창호(33·광주 중흥동)씨는 “최순실이 인사, 국가 안보 등 국정에 관여했다는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 백남기 농민의 고향인 보성에서도 도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문화제 및 박근혜 정권 규탄 촛불 집회가 진행됐다.

추모문화제에서 백남기 농민이 직접 이름을 손수 지어준 신고구리(12)군은 크리

스마스 캐럴 ‘펠리스 나비다’를 개사해 만든 ‘그네는 아니다’를 불러 주목을 받았다. 신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하야하고 어서 좋은 대통령이 뽑혔으면 한다는 의미로 ‘그네는 아니다’를 노래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보성 촛불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나고도 서로 술잔해 스레거를 주으며 현장을 마무리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국청년정책연대 청년과 미래와 순천대 등 전국 6개 대학교 지난 4일 공동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하야하기를 촉구한다”며 “검찰은 ‘관력의 시나’에서 벗어나 진실을 낱날이 밝히고 국정농단 책임자 전원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 ‘박근혜 하야 촉구’ 집중 촛불시위가 열린다.

수요일 촛불시위는 민주노동 광주본부 주최로 열리고, 토요일에는 국정농단 헌정파괴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준)가 촛불시위를 이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 농민, 시민들은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동신여고와 수피아여고, 주월중, 송의중 등 10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6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학생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태블릿PC 최순실 것 맞다”

檢 “2014년 3월까지 사용”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으로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최씨의 비선실세·국정개입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맞으며, 최씨가 사무실에 방치해 두고 장기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직접 보고도 여전히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40)씨 또한 앞선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태블릿PC는 청와대 문서 유출과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물증이면서도 누구의 것인지조차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은 최씨의 ‘셀카’ 사진과 친인척 사진을 다수 발견된 점 등에 미루어 해당 기기가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의해 2012년 6월 처음 개통됐고 이후 2014년 3월까지 최씨가 사용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주요 인물 조사 현황



최순실 (60) '비선실세'

재단 출연금 강요와 개인회사 ‘디블루K’를 통해 경기업과의 사업 계약을 핑계로 7억원대 예산을 편취하려 한 혐의
- 구속일자: 11월3일



안중범 (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납부를 강요하고 ‘문화계 비선실세’로 불린 차은택(47)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운 혐의
- 구속일자: 11월6일



정호성 (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대거 넘긴 혐의
- 구속일자: 11월3일



우병우 (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등과 관련한 직권 남용 의혹
- 피고발인 신분 조사 중 (11월6일 현재)

연합뉴스

안중범·정호성 구속…이젠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차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체포된 후 잇따라 곧바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반 수사는 미르 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이라는 두 줄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우선 안 전 수석 쪽 수사는 재단 ‘강제 모금’과 최순실씨의 사유화 의혹 실체를 규

명하는 방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때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한편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 갈날이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려온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향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고리 3인방은 1990년대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최측근 비서진이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전산 보안을 담당했다. 그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는 연설문 등 문서의 외부 유출이 불가능하므로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의 의상실 CCTV에 촬영된 이영선 전 행정관이 속했던 제2부속실도 안 전 비서관 책임 아래 있었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폐막…관람객 40만명

본전시 26만2500명…유료 17만6500명

“2016 광주비엔날레”가 6일 폐막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6일 약 40만명이 ‘2016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참여프로그램 ‘나도 아티스트’ 관람객 수를 포함한 수치로, 본전시 관람객 수는 26만2500명이다.

본전시 관람객수는 ‘세월호 사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14년(17만6922명)에 비해서 33% 증가했고, 2012년에 비해서도 약 4만명 늘어났다.

유료 관람객은 2014년을 제외한 역대 행사중 가장 낮은 17만6500명이다. 이중 학생(초·중·고)은 4만4500명도 나타나 여전히 학생 단체관람이 관람객수에서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37개국 101명이 참여해 작

품 250점을 선보였다. 특히 신작 비율은 어느 행사보다 40%에 이르고 광주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을 대거 선보였다.

또 공유공간 뽕뽕브릿지, 광주문화예술회관, 국유미술관 등 광주·전남 10곳에서 기념전이 열려 풍성한 미술 잔치를 만들었다.

이날 폐막식에서는 후원사 GKL 사회공헌재단, 셀트리온, 크라운해태제과, 광주신세계, 에이블커뮤니케이션(주)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또 시민 참여 프로그램 ‘나도! 아티스트’ 시상식도 열렸다. 최우수상은 ‘썸, 비로소 보이는 것들’(최정란 외 120명)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총장로 마을 벽화’·‘금나와라 똑딱 온나와라 똑딱’(김순정 외 14명)이 받았다.

광장에서는 참여작가 애니 라이 군완이 작품 ‘오늘도 무지개’ 안을 채웠던 과자를 나눠주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고흥군유통(주) CEO(대표이사) 채용공고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에서는 경영능력과 농산물유통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을 대표이사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직 위 : 고흥군유통(주) 대표이사
-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2. 응모자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 및 금융거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농산물유통 관련 업종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자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경력기술서 포함)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사업계획 포함) 1부
- 경력증명서 각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서류 접수기간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16.11.7.(월) ~ '16.11.11.(금), 18:00
- ※서류일체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접수 확인요망
- 접수방법 : 등가우편(감봉에 대표이사 지원서류 제증 명기) 및 방문접수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고흥로 3137, 고흥군유통 채용담당자)
- ※소정양식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매일 발송함

5. 채용심사 및 합격자 발표

- 채용 심사 방법 : 서류심사(1차) 및 면접전형(2차)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6. 11. 14.(월) 15:00 이후 개별통보
- 면접전형 일시 : 2016. 11. 17.(목) 13:00부터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1. 18.(금) 15:00 이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거짓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관련규정 위반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모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유통(주) 채용담당자(☎ 061-832-00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7일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 주식회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6 - 147호

진곡산단 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진곡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를 일반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급대상 용지

지 번	필지수	면 적(㎡)	필지별 가격(㎡/천원)	비 고
			최저가	최고가
진곡동 509번지 외	4	3,440.6 (584.9~1,034.5)	528,749	830,703

- ※ 산단내 분양필지는 비다짐이며, 필지별 단차 등이 있으므로 현장 확인 하이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진곡산단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등)될 경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 ※ 필지별 세부 가격조서는 공사, 온비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 일반실수요자

○공급방법 : 일반경쟁입찰(온비드 홈페이지 이용 전자입찰)

○입찰기간 : 2016.11.18(금) 10:00 ~ 2016.11.21(월) 16:00

○보 증 금 : 입찰서 투찰서 보증금 납부 - 온비드(www.onbid.co.kr)

○개 찰 : 2016.11.22(화) 10:00, 도시공사 분양팀 입찰집행관PC

○발 표 : 2016.11.22(화) 11:00, 온비드 홈페이지 참조 (별도공지 없음)

○계약기간 : 2016.11.24(목) 10:00 ~ 16:00 (광주도시공사 1층 고객행복센터)

※ 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로 귀속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분양공고란, 온비드 홈페이지 분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입찰관련 문의는 온비드(www.onbid.co.kr, 콜센터☎ 1588 - 5321)
- 분양용지관련 문의는 광주도시공사 분양팀(☎ 062 - 600 - 6661 ~ 3)

2016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2017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관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입학원서 작성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포함) 청구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전형일시	2016. 12. 7.(수) 10:00~
합격자 발표	2016. 12. 22.(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식품·차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
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 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a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팅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